

나도 젖소 박사

“달진맘의 낙농수첩”(1)

달진맘, 조옥향

(머리글)

강산이 두 번 바뀔 세월을 젖소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연의 순리에 발맞추어 황무지를 파헤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지나간 은아목장이 있기까지는 일전에 언급하였고, 오늘은 리세기를 준비하는 달진
 네 식구들의 젖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달진네 식구들의 젖소 사랑법과 즐거
 운 “樂農”을 하고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 감정을 하깨된 동기 ★

흔히들 등록, 심사, 검정이 삼위일체라고 하여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 주어야 종축개량이 성공적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소를 바가지로 뒤집어쓰고 길거리
 장사꾼 소를 입식했을 때부터 좋은 소는 내가 만
 들어 키워 내야지 요행을 바라고 길거리에서 주어
 올수는 없다는 생각이 처음 목장을 시작하면서 세
 운 경영의 첫째 신조였습니다.

작은 두수이지만 기록을 했고, 이왕이면 태어날
 송아지의 이름이나 혈통은 알아야겠기에 수정사
 가 수정시키고 내버리고간 정액을 주워서 수정장
 부에 태이프로 붙여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
 니다.

요행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미의 돌림자를 따
 서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키워주었다

니다.

부부가족 노동으로 은아목장은 꾸려져가는데
 육성우는 어미가 자식키우듯이 키우면 성질이 온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 성우사에서 분만후
 적응하기가 쉬웠지요.

우리집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육성우는 가족
 노동이면 가급적 안주인이 자식돌보듯 하라고, 그
 래야 좋은 성적을 올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곤 한
 답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했을 때 착유우3두로 바켓츠착
 유를 했었습니다.

사료를 먹이는 법도 모르고 좁은 목장길도 나쁘
 고 하니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누구한테도 급여량
 이라든가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량기록이 있어야 사료급여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3두 착유할 때부터 유량을 매일 적었지요.

그때는 앓은뱅이 저울을 구해다 바켓즈 무게만
큼을 돌려놓고 달아서 기록했습니다.

애들아빠나 남동생이 처음에는 귀찮아 안하다
가 성화에 못이겨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으로 급
여량을 정하고, 산유량 그래프는 상아이빨처럼 들
쭉날쭉이지만 그리고, 매월산유량을 기록해서 사
료회사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 사료급이량을 구하
는 것을 보고는 필요성을 일찍 파악하여 빨리 적
응하여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고 외부에서의 소 구입은
없이 30두 우사가 채워질 무렵 도입 정액을 공급
해주는 지금 중앙무역 씨의 권유로 입회검정을
하게 되었지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 관리의 첫 번째가 기
록이라면 그기록으로 성적을 공인 받을수 있고 정
확한 데이터로 사양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는 판
단이 섰으므로 목장이 작아서 직접입회검정자리
가 나서질 앓았는데 몇 년을 기다리다 요행 기회
가 주어져 검정을 시작했습니다.

기라성같은 대선배님들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목장이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요.

★ 검정 자료를 활용하기 ★

일년이 지나서 제대로 된 우리집목장 성적이 나
와서 타 목장과 비교할 수가 있었답니다.

주먹구구식의 계산이었지만 검정전의 기록으로
도 그당시 89년도에는 6000키로였지요.

처음에 검정성적표가 305일보정유량로 기억됩니
다. 부끄럽고 창피했지요.

꿀찌는 하지말아야 했고 그 기록으로 유지방과
유단백, 무지고형분이라는 전문용어부터 새롭게
공부하며 탈7000키로를 선언 했습니다. 유량상승

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습회건 세미나건 젓소의 사양에 일가견이 있
는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궁금한거,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배우고져 했답니다.

검정직원이 오는날은 그동안 궁금했던거 알구
싶었던것들을 노트에 적어 놓았다가 밤늦도록 물
어보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랬었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
서 자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소를 좋아하고 일에 미쳐서 장가도 늦게간 노총
각 선생님 하교의 매달 개인교습시간....

밤늦도록 도무지 알아 들을수도 들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아빠와 함께 실행에 옮기고.

소의 기질을 닦아갔지요.

그후 경인목장에서 독립 “은아”라는 우리만의
목장을 하면서 가족노동으로 유질개선과 유량에
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93년 성적은 성년형이 7,469kg에서 9,036kg으로
비약의 발전을 했습니다.

유전적인 능력을 못 찾았던 것을 찾았다할까요?
사양관리를 나보다는 소위주로 전환을 했습니
다.

전환기의 어려움은 많았지만 하고야 만다는 의
지로 최선을 다했지요.

2마리토끼를 잡으려구요...

최선의 노력을 한 부분중에 첫째가 육성우의 사
양에 과감한 변화와 유질개선에 주력했습니다.

부부가족 노동으로 작게 꾸려가는 우리목장의
소들이 정예화가 되어주고 유질에서 높은등급의
고효율적 목장경영이 아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
장한 각오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시도로 배운 것을 저희목장에 그대로 형편에 맞게 도입을 했습니다.

★ 공인된 검정기록을 활용하자 ★

처음 목장을 시작하구선 낙우회나 축산기자재 가게를 가면은 자연스레 화두는 젓소이야기가 젓소부인이나 사장님들의 이야기 뿐 이지요.

기죽이는 소리뿐... 우리소는 바게스를 넘쳤느니, 우유가 몇두에 몇키로니, 지방이 어찌니하며 자랑을 늘어 놓을때면, 난 새댁이기도 했지만 우리집은 우유가 그리 생산되지 않아서 꿀먹은 벙어리마냥 자랑을 들으며 속을 끓이며 속상해 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검정을 처음 89년에 시작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1회 고능력우품평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고 수원우시장에서 참관을 했었지요.

출품하지 않고 강건너 불보듯 보면서 우선 소의 깨끗함과 잘생긴 체형에서 멋져 보였지요.

내가 쓰는 정액의 소가 출품되어 내소는 비록 출품을 못시키지만 탄집의 소들은 어찌 키워졌는가 궁금했답니다.

나두 언젠가는 우리집에서 제일좋은 젓소부인을 뵈시구 이 자리에 서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생겼답니다.

마음 먹으면 길이 있는가... 검정 개시 2년 뒤부터 출품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듯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4회 부터로 기억됩니다.

경산우와 초임우를 고르고 몇 달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경산우는 마리수가 적고 이왕이면 품평회

행사 전에 아름다운 체형과 유방을 갖추기 위하여 분만일까지 조정해야 했었지요.

우리부부는 의기투합 되어서 일년전부터 내년 쇼를 준비하고 수정일자를 가급적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도 체형이 우수한 정액으로 기꺼이 골라 쓰도록 애를 쓰고요.

즉, 우리는 쇼를 출품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서 들어온 종모우 책자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출품축을 예쁘게 꾸며줘야 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시는 분이 안계셨습니다. 할수 없이 독학으로 직접 했습니다.

목욕을 샴푸와 린스로 시키고 그리고 털깎는 기계를 빌려다 깎아 주었습니다.

꼬리는 오줌물에 노오랑게 찌든 아이들을 착유시마다 빨아주어 눈부시게 하얗게 계속 락스물에 꼬리두 담구고 탈색전용 빨래비누로 감겨주고 수건으로 딱아 주고 한달 내내 매일 그랬지요. 꼬리털이 다 빠져 나갈 듯이...

출품 20일전에 몸통을 뽀뽀밀어 깎고 출품 7일전부터 꼬리를 계속 빗질을 해 주었지요.

꼬리를 거꾸로 치켜 들고 긴 타래를 정성스레 펴말렸답니다.

한때는 스트레이트 파마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궁리 끝에 미장원에서 쓰는 스프레이를 구해서 뿌려주었습니다.

몸의 털깎기는 어려웠지요..

처음에는 흰소를 출품했는데 뽀뽀밀어서 속살이 핑크색으로 보기 흉하게 되기도 했었지요.

취가 뜯어먹은 형상이기도 했었답니다.

이제는 전용 꼬리빠는 샴푸, 몸체딱는 샴푸, 꼬리와 등허리 털세우는 전용 스프레이두 구했답니다.

다.

일전에 일본과 미국의 홀스타인쇼를 보러 가서 유심히 배우고 일습을 구해왔지요..

긴 일선이지만, 품평회에 우리소를 데리구 출전 하는 일은 우리부부의 커다란 재미였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냥 홀스타인쇼를 구경하는 것 보담 직접 소를 출품하여 각 지역의 비슷한 월령의 소를 비교 심사하는 일은 내 목장의 현재의 위치와 사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일 정확한 가치척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전국의 많은 낙농가들과의 선의의 경쟁속에서 우애를 다지는 일은 외출을 거의 안하는 우리부부의 기다려지는 년중 최대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운 좋게 95년에 “달진”이 챔피언에 등극되고 종축분양목장으로 엘리트목장을 하고져 했던 나의 경영전략에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검정기록을 토대로 품평회 출품도 가까이 하지만 그것 보다는 소들의 전체평균 우군의 개량방향이나 도태우선순위, 사양방법을 정하는데 기초자료였습니다.

도태 우선 순위는 체형과 검정성적이 바닥부터 잘라서 공통의 점수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000키로와 6,000키로 짜리를 한우리에 서 관리하기란 짜증스러운 일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체형점수, 산유능력에서 아직도 우리는 개량되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저... 기록을 토대로 사양관리를 제법했다고 밖에는...

개량은 끝이없는 미로와 같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그맛에 빠지면 무궁무진 빠져들게 하는 것 또한 고능력젖소사육과 개량이라 생각합니다.

엄마의 소는 이랬는데 그아이의 이모나 사촌은 어떠할까? 같은 종모우정액을 써서 “진실”이는 어떤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의 모습은, 유방은, 유량은 어떠할까 궁금하고, 빨리세월이 흘러가 주어 능력을 보고 싶고 기다려 진답니다.

흔히들 낙농업을 3D 업종이라 하는데..

진흙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나지 않던가요?

축산업중에 타직종은 모르지만 소를 기르고 우유를 생산하는 일은 나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2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가 있다고 확신입니다.

★ 1등급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나의 전략 ★

목표를 1등급 생산에 맞춰 놓고 올바른 착유절차는 습관들이기가 번거롭고 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실행에 옮기고 나서는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지요.

- 젖내림의 촉진
- 유두표피의 세균수 감소
- 우유의 세균오염을 줄였다 (항시 세균1등급)
- 착유 끝날시 잔류우유의 양을 줄였다.
- 우유생산을 증가 시켰다.
- 착유시간을 단축 시켰다.
- 유질이 좋아지고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줄고 도태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하기위한 착유과정을 요약해서 나열하겠습니다.

1. 깨끗하고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착유환경

착유시간이 일정하고 소를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게 했습니다.

착유대기장 스톨로 진입시 그녀들이 좋아하는 쪽 좋아하는 칸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해주고 있고, 날뛰거나 바뀌지 않게 기분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 착유순서는 교과서에 있는대로 했습니다.

전침지, 전착유 물수건 및 마른수건을 넉넉히 사용, 유두컵은 전착유후 가급적 빨리 유두에 라이너를 1분 이내에 부착 등등을 말합니다.

3. 유두컵의 장착후에는 미끄럼 방지.

“칙칙” 거리는 소리는 착유중 기계적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두와 라이너가 직각이되게 장착해 주고 있습니다.

4. 기계적인 결함이 없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

착유중에 42KG에 착유진공압이 일정한가를 보고 최대 유속을 3.6~5.0Kg/분으로 하고 유니트를 최소한의 시간에 유방에 부착시키고 착유기 탈착후에 잔류가 450g을 넘지않게 했다.

교과서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은아네식” 체세포관리요령과 방법을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1. 유전적인 능력을 보고 정액부터 선정했다.

모전여전일까? 엄마의 형질을 많이 닮아 갔는데... 자궁탈이 있으면 딸도 반드시 그리고 유방염이 잘 걸리는 체형의 유방을 갖고 있으면 착유중 연속적으로 재발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후손도 같은 병력으로 힘들게 해주드라고요..

검정기록과 병력기록을 보고 도태0순위로 정하고 과감히 선별을 했답니다.

엘리트화 소수정예화군단을 만들어 나가야지 유량과 유질로 소득과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UR. 협상이후에)에 따라 도태와 정액선정, 개

량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유전적인 결함에서 오는 손실은 기초가 영성한 모래위에서 벽돌 쌓기만큼 불안했기에...

밀킹 스피드를 꼭 보았지요.

착유속도가 느리면(흔히들 젖이 질기다 함) 유량이 많고 유방형질이 아름다워도 다두 사육에 더욱이 가족노동으로 일하는 우리집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 결별의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 정액선별시 우수생산능력보다는 완벽한 체형을 갖고 반복술이나 신뢰도가 높은 종모우를 선별했지요 ★

아울러 젖내림이 느리면 과착유가 되어 유두공이 벌어져서 유방염이 다발 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체세포지수도 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종모우 선별시 고려대상에 꼭 들어가 있지요.

종모우로 난산을 고려 2가지 형질도 참고하고 체형이 좋은소 위주로..

2. 과감한 도태를 했습니다.

착유하다가 유방염이 다발하면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산차, 유기, 유방형질, 병력을 토대로... 도태를 냉정히 했습니다.

만성유방염이 있어서 1년에 3번이상 유방염을 앓은 아이는 도태 최우선에 놓았지요.

지금은 육성우 대비 경산우 대체가 1유기당 년 10%미만이지만 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 목장이 유방염과 불임이 도태의 1순위인 것 같습니다.

3. 체세포기록표를 만들었습니다.

착유중에 착유자와(축주)와 소가 합심해서 완성

해야될 최후의 마무리작업이 착유라 생각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각에 정한 방법으로 흔히들 소에게 스트레스주지말고 하라는 말대로 일년 12달을 매일같이 하는 작업인데...

지겹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거뒀들이는 작업을 소들도 안락하고 우선 사람이 편하고 덜지치게 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이나 착유과정의 시행착오로 오는 손실을 줄이고 최상의 유질을 얻기위해서....

유방염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기계적 결함과 착유과정에서 오는 악습관이 유방염 발생요인중에 60%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바깥으로 착유를 했었지요. 그러다 파이프라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30두 착유우사에 스텐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착유 작업은 많이 성력화 되어서 편하기도 했지만, 이미 산유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2회착유시에 착유기 소리나 외부의 영향으로 환경성 유방염이 종종 있었습니다.

계류식 우사라서 분만한 애들과 유량이 높은애, 젖이 새는 아이부터 착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세균과 체세포의 개념두 몰라서 황당스러울 때, 기계의 결함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체크 받고 유방의 각 분방별로 도표를 만들어 전두수 C.M.T 방법으로 검사를 1달에 2번 주기적으로 몇년을 했습니다. 반드시 C.M.T 판정여부를 기록했습니다.

C.M.T 약제도 새것으로 바뀌가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소의 능력(기능이상)이 기대 이하인 아이들과는 과감한 결별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즉, 같은 방향의 라이너에서 체세포가 높은 아이들은 4분이상 나오면 기계정비를 했는데... 하이라인이 초 고능력우에겐 밀크메타까지 부착 착유하는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몇 년을 검토 후 이상우는 미리미리 치료를 했지만 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치료부담과 짜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버리는 우유손실, 약값과 수의사 비용, 우유생산량 감소 등등... 처리문제 정신적 압박감...

Low-라인으로 전용 착유장을 만들고 시설을 바꿨습니다.

지금 만 5 년째 사용중인데 환경이 쾌적합니다.

2×3두 오토텐담(덴타메틱) 자동유량계와 탈착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4. 착유시는 교과서적으로 했습니다.

흔히 책에서 보는데로 10가지 나열사항을 지키면 되는데... 전침지, 전착유 최소한의 물사용, 후침지의 순서를 지켰습니다.

전침지는 환경성 유방염을 차단해 주기위해 일단 착유장에 입실하면 지저분한 상태에서 핵사딘 제제를 사용합니다.

디핑은 손으로 일일이 적셔줍니다.

착유수건은 바켓에 물10리터당 하라술을 4cc단위로 넣어서 착유두수의 1.5배의 수건을 적시고, 그것과 동량의 마른수건을 준비하고 그것을 담아 빈바켓을 준비하고 한번쓴 수건은 다른통에 담아지게 했습니다. 착유실에 3개의 바켓이 있으면 됩니다

비가오거나 날이 궂은날은 마른 종이행주도 더 쓰고...

전착유시 흑포(스타킹)쉬운 망에 걸러받는데 8번정도를 꼬옥 짜줍니다.

치료시기를 판단해야 하는데 작은 덩어리가 발

견시 내버려두면 유방염으로 진행되어 덩어리가 많이 흑포에 나옵니다.

비칸톨E성분을 근육부위 깊숙히 주사1일 1회2ml씩 3일간 해주었습니다.

항생제를 안쓰고 유방염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 하고저 했습니다.

착유후에 자동탈착이 되면 분방을 만져보아서 라이나에 유두가 잘못물려져서 착유안된 아이들 빼고는 그냥 후침지 해주고 퇴장 시킵니다. 절대로 후착유를 한다고 맞사지를 하진 않지요.

침지약은 스프레이보다는 디핑법으로 잘적서 주어서 확실히 유두에 2/3을 약에 담귀주었지요.

침지약은 주로 헥사딘과 베타딘, 그리고 어더골드를 쓰는데... 베타딘을 겨울에는 글리세린과 7:3으로 섞어서 쓰면 유방이 트지 않아서 좋습니다.

약효가 상실될까봐 그날 쓸 것은 그날타서 1마리분만 꼬옥짜서 쓰고 남은 것은 버리고 했습니다.

특히 베타딘은 옥도가가 오래되면 약효와 효력

이 없어서 용량이 작은 것부터 뚜껑을 열어 되도록 빨리 쓰도록 했습니다. 출고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요.

침지액을 한꺼번에 잔뜩 몇일분량을 타놓으면 소독효과가 없고 오히려 세균이 침지약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날그날 가급적쓰고 1일을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착유수건은 매일 1두당 4장 이상을 쓰고 햇빛에 말리고, 푹푹 삶아서 쓰지요.

착유후에는 침지후에 팔약근이 닫히는 시간까지 반드시 세워주었습니다.

사조앞에 스탠촌을(목사리) 설치 착유후에 조사료를 놓아주고 유인했습니다.

잠긴 목사리에 묶여서 자기배식만 먹고 착유가 다 끝날때까지 세워놓는 것이 똥으로부터의 연쇄상구균쪽 유방염을 많이 차단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중축개량”지 6호에 연재됩니다.

* 은아목장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2리 산42번지
김상덕, 조옥향 0337)882-5868



건강정보

목이 빠근하고 피곤할 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피로이며, 어깨가 무겁고, 목덜미에서 뒤끝까지 빠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는 쇠뿌리를 다려서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또, 대수시에 김조를 조금 넣고 서서히 달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